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고후 8:7~9)

##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2023년 김정석 담임목사 신년사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갈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은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성경에서 70년은 '약속이 성취되는 해'입니다. '회복의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해방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0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널리 증거하는 광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일상에 엄청난 충격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개인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혼란과 고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단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아

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시간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 더불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올해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 중입니다. 이 성전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며 광림의 선교적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3면에 계속

# 부르심에 응답하라

“...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은 실망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윌리엄이 넓은 어깨를 푹푹이 편 채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가?” 흥분한 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말씀을 자네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복된 일꾼이 된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소명을 품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원리를 얻고자 합니다.

##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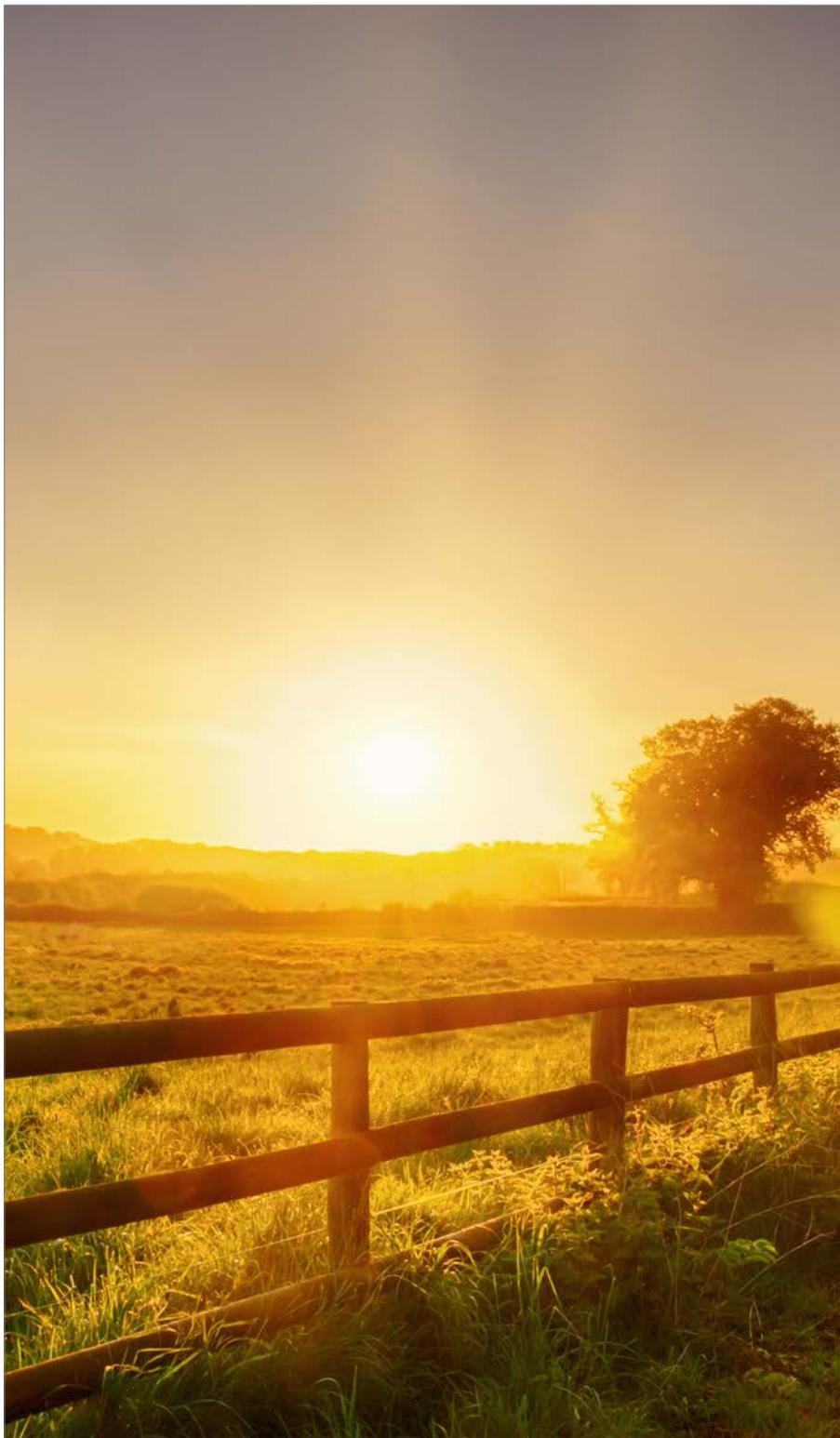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 곧 소명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단순히 소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주어지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잔잔하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다가 점점 그 음성이 분명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불시에’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창 12:1)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돌아가라”(출 4:19)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명령처럼 보이는 이 말씀 뒤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그들에게 약속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순종이라는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르심이 들렸을 때, 이를 요구 혹은 부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약속으로 생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 마태복음 4:17~21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 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 소명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슬픔이나 낙심, 좌절과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 중에서도 부르시고 사랑과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상황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습관이나 예배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 중에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모두 낱알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삶의 주관자로 의지할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에 응답하는 삶

소명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 또는 공동체에게 전해집니다. 함께 소명을 공유하며 같은 소명을 품게 되고 그 안에서 일치된 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소명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두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향한 두 형제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나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삶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복된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 이어

또한, 아프리카 잠비아에 미션센터를 건축하여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직업학교와 의료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며, 특별히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학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의 회복과 청년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에서는 공교육 지원과 신앙교육을 함께 하는 사이닝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교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청년들이 광림제단을 통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의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지원할 때 미래가 밝아질 것을 기대하며,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와 고독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를 향한 공공의 선이 확산하며 복음의 확장성과 더불어 교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모든 모임에서 예수의 생명을 다시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모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의인의 후손이 누리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시 119:105)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서 광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을 굳건하게하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담임목사 김 정 석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김정석 담임목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열렸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차별을 조장하는 역차별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하나님은 양성 평등을 통한 화합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만을 위한 다수의 역차별로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 학교, 공동체라는 사회 통념을 파괴한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 통념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창조된 성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가르치며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개별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내용을 알면 국민 70%가 반대를 하는 악법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표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동성애 비판은 곧 범률 위반’이다라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윤리관, 도덕관은 존중하지 않으며 소수만을 위한 법제화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세대를 위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앞장서고 있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의 1인 시위에는 광림교회 태영호 성도(국회의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길원평 한동대 석좌 교수, 안석문 아침교회 목사가 동참해 힘을 더했다.

이상희 기자

## 포토 뉴스



송구영신예배

2022년 12월 31일 대예배실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임원전지훈련 1차

1월 4~5일 집사들을 대상으로 임원전지훈련을 진행했다.



2023 상반기 속회공과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행되었다.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담임목사 동정



- 12/28 당회·구역회
- 12/29 차별금지법 반대 1인시위
- 12/31 송구영신예배
- 1/1 신년예배
- 1/3 시무예배
- 국민일보 신년대담
- 1/4~5 임원전지훈련 1차(집사)
- 1/8 청지기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2022년 교회업무 결산하는 당회, 구역회 열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교회 내 중요 회의인 당회, 구역회가 12월 28일, 수요일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기본 의회이며, 참석 대상은 세례 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과 교역자, 직분을 맡은 장로, 권사, 교회기관 부장, 속장, 선교회 임원 등이다. 당

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세 가지로 첫째는 입교인 정리, 둘째는 새로운 임원 선출, 셋째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담임목사는 신년 목회계획을 발표하고, 교회의 행정적 보고와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 구역회는 광림교회가 일 년 동안 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재산관리, 인사처리, 지방회 대표 선정 등을 한다.

올해 새로 직분을 받은 임원은 권사가 신천 78명, 명신 6명, 이명 4명, 이명 명예 2명 등 총 90명이며, 집사는 신천 88명, 명신 6명, 이명 5명 등 총 99명이 선출되어 당회에서 각각 호명되어 축하를 받았다.

당회와 구역회에서는 교회 안 밖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과 행정을 결산 보고하는데, 총 46개 위원회 중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는 한 해 동안의 활동상황을 영상으로 보여 주었고, 나머지 43개 위원회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의장으로 사회를 맡은 김정석 목사는 광림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보고시간을 갖고, 지난 2년간 남연회 감독으로 미자립교회를 위해 섬겼던 사역과 여름 홍수, 울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보고했다. 또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 기공, 몽골 선교센터, 아펜젤러 선교센터 리모델링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기타 사무처리 순서에서는 교회 여러 위원회에서 수고와 헌신을 한 봉사자들에게 감사패 수여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109명을 전도한 임옥주 권사와 107명을 전도한 최정순 권사에게 전도상을 수여했다.

또 상담선교위원회 김영훈 권사, 오수희 권사, 동시통역위원회 강연희 권사, 이종국 권사, 뉴스레터위원회 이상희 권사, 이득섭 권사, 기도선교위원회 김영기 권사, 이종국 권사, 예배위원회 양한웅 권사, 이성곤 권사가 김정석 담임목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득섭 기자

# 송구영신예배, 말씀과 기도로 새해 맞이해



2022년이 저물고 언약의 무지개처럼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이며 광림교회 표어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 8:7-9)'이다.

광림의 성도들은 12월 31일(토) 오후 11시 30분, 묵은해를 보내고 하나님께 주관을 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활짝 여는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를 드렸다. 본당 대예배실과 벨렐 성전, 나사렛 성전, 장천홀,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맞이했다.

송년예배에서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자정이 되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겸비함으로 내일을 기다려라'는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침체 등 국내외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광림교회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영적 회복에 힘썼다.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고 성결케 되기를 기다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또한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그치며 한국교회와 광림의 제단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선교와 전도 등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 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은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첫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목상했다.

송구영신예배의 은혜를 더한 갈릴리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며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의 소망을 마음속에 새겼다.

마지막은 촛불예배 파송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점화되어 성전 가득히 퍼져가는 불빛과 같이 성도들은 촛불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하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되기를 결단했다.

소현수 기자

# 2023년 임원전지훈련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라"



2023년 광림교회 임원전지훈련이 1월 4일(수) ~ 5일(목)까지 1차 집사들을 대상으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임원전지훈련은 한 해를 시작하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목회방향을 설명하고, 청지기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은 적극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신천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집사들이 참석한 임원전지훈련은 경배와 찬양, 기도로

시작했다. 첫째 날 강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는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라"(롬 1:8-15)라는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확신과 감사,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복음이 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서, 당시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내신 목사님과 가족들의 순전한 믿음의 간증을 뜨겁게 전했다.

둘째 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했다.

올해 광림교회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라는 2023년 표어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 순서로 성찬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경건하게 주님을 목상하며 성찬에 참여했다.

신천임원으로 임원전지훈련에 참석한 강주호 집사(29교구)는 "직분자로 처음 참석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음악적인 부분에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모님께서 참석하시던 임원전지훈련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원전지훈련은 1월 11일(수)~12일(목)이며, 첫째 날 강사는 최이우 목사(중교교회), 둘째 날은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으로 이틀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 성탄절 거리전도하며 예수님 사랑나눔

## 밀레니엄 공원에서 호빵으로 이웃 상인들에게 사랑 전해



거리전도에 소명이 있는 광림교회 청년들의 보아오(BOAO) 전도팀은 지난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호빵을 준비하여 거리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 앞에서 따뜻한 호빵으로 지나가는 행인들과 교회 인근 이웃 상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보아오(외치는 자) 전도팀은 이름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심을 외치는 청년들로 인해 광림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호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하는 호의에 행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도 밝게 웃으며

호빵과 전도지를 건네는 청년들의 손길에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웃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예빵(예수님의 빵)이 전도행사에 참여한 방승언 형제는 “목요쉐키나에서 예수님 생일파티 선물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고민을 하다가 예빵이 전도행사를 함께 하자 연락을 받아 기쁘게 참여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거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청년부 이재민 형제는 “요즘 직장생활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빵이 전도행사로 복음 전하는 데에 힘쓰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예빵이 호빵전도를 통해 전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사랑이 체험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광림교회 젊은 전도자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림교회 청년부의 BOAO 전도팀은 계속하여 거리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 신앙 간증

##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속장 박승규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돈이 있나 뻘이 있나 우린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후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고, 광림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속회를 배정받았습니다.

속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해 주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속회에서 청년들과 은혜를 나누며 제 삶을 돌아켜 보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용돈을 주시던 고모가 계셨고,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를 진정 아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간단한 안부전화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기까지 제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는 어려움이 많고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약한 나를 지탱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오면서도 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제 발이 부르츠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호렙산과 교육선교에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았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속장을 맡기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승규 속장(청년부)

박희운 기자

# 샤이닝스쿨 · SSA <제 3회 샤이닝 성탄 페스티벌>



12월 23일 (금)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샤이닝 성탄 페스티벌>이 열렸다. 샤이닝스쿨과 SSA(Shining Saturday Academy) 학생들이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기쁨의 축제에 함께 했다.

샤이닝 친구들은 학부모와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샤이닝스쿨과 SSA에서 배운 찬양과 율동, 필라테스, 피아노, 칼라바, 가야금, 바이올린, 한국무용, 발레, 펜싱을 선보였다.

특히 샤이닝스쿨 학생들은 학년별로 성탄 찬송 합창, 워십댄스, 연극을 공연했다. 이번 <샤이닝 성탄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사회부터 공연 준비, 공연까지 아이들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탄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아이들이 이번 성탄 페스티벌을 통해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와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다는 경험을 누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참석한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임을 알아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된 샤이닝스쿨과 SSA,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학교를 위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목회현장

결국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김덕민 목사(광림서교회)

심방을 하다보면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그 내용과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목회자가 주로 내리는 결론은 “기도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요,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등입니다.

광림서교회 교인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방을 하다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기도 하겠습니까”라는 그 말이 때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 할 때에 삶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묶여 있던 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해했던 상황이 풀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되고, 마음과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하게 보이는 ‘기도, 예배’라는 대안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차원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내어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되어 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또 다른 도전과 어려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딜지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2023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광림서교회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광림서교회는 지난 12월,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통해 2022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2월 18일(주일), 기쁜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영·유아·유

치부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 아동부 어린이들의 수화 찬양과 워십댄스, 중고등부 학생들의 블랙라이트 공연 등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31일(토), 2022년 한 해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시작되는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올 한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월 1일(주일),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앞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2022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시작되는 2023년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이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예배당에 올려 퍼진 성탄 축하 전야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을 맞아 광림북교회에서는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5시 대예배실에서 성탄 축하 전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하 전야제는 청년부의 여는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성탄 축하 전야제가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모일 수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광림북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큰 박수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 성탄 축하 순서에서는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탄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동 1부의 황은유 어린이의 피아노 솔로를 시작으로, 아동 2부와 중등부 여학생들의 워십, 김미

라 집사·정민주 청년의 피아노와 플룻, 영유아유치부와 아동 1부의 찬양, 그리고 중등부 남학생들의 콩트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광림북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는 몽골 청년부에서도 몽골어로 노엘(Chris tomlin)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찬양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와서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빛이 되신 이를 보라 그리고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이며 구원의 소식이 되어 오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보



다 뜻깊은 성탄 축하 전야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경품 추첨과 더불어 선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의 이름이 불려질 때, 누구나 할 것없이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면서, 성탄의 축복이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산타로 분장한 김형준 성도님께서 양말 모양의 과자봉지를 나누어주시심으로써 자녀들에게도 복되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하나님께서 성탄 축하 전야제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2

# 선한 사마리아인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3



1890년대 상동병원

### 스크랜턴의 의료선교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6년 봄, 정동에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고 6월 15일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고종 황제로부터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는데, 인술을 베푸는 뜻과 스크랜턴의 한국어 이름 시란돈(施蘭敦)의 '시'를 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병원은 한국에 설립된 서양 의료기관으로 는 제중원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최초의 민간

진료기관이었습니다. 정동의 시병원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자 버려진 극빈층의 환자를 돕는 계획인 '선한 사마리아인병원의 일환'으로 1888년 12월에는 서대문 밖 애오개에도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스크랜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남대문시장과 인접한 상동 언덕에 약 2,000평의 땅을 구입하고 한옥을 개조하여 1890년 10월 남대문 시약소를 열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는 환자 형편이 되는대로 받았습니다. 신분 사회에서 사람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먼저 스크랜턴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 무당의 굿도 효력이 없다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서양 의술에 감탄을 했습니다. 스크랜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 북감리교회의 의료선교는 서울 동대문 부인병원(이화의료원)과 평양의 기흥병원, 해주의 구세병원, 원주의 서미감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약소에서는 치료와 복음전도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사는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복음서를 팔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입원환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고, 11시에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는 환자들을 모아서 성경공부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 스크랜턴의 목회

남대문 시약소에 온 환자들은 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시약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1893년 시약소 예배처소는 정식으로 상동교회가 되었고, 윌리엄 스크랜턴이 초대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이 성공하려면 위치가 중요하며, 특별히 서민들을 위해 남대문 지역에 병원과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상동교회는 훗날 민족운동의 주역이 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을 길러내는 민족교회가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상동교회뿐만 아니라 동대문교회와 아현교회를 개척했으며, 상동교회를 통해서는 궁정교회, 세검정교회, 마포중앙교회, 공덕교회, 청파교회가 개척되었으며, 동대문교회를 통해서는 두모작교회, 화양교회, 삼청교회, 용두동교회, 청량리교회, 꽃재교회가 개척되었고, 아현교회를 통해서는 북성교회, 모래내교회, 옥성교회, 보물리교회, 영전교회, 제부도교회, 고포교회, 동리교회, 벨엘교회, 예찬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한 선한 사마리아인 스크랜턴으로 인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 4주 과정으로 재편

###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교육



광림교회 예배로 첫발을 떼고 정식 교인이 되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양육과정인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새가족 양육은 광림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필수 과정 중 하나로 꼽힌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새가족 교육을 주관하는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편해 1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재편의 주요 골자는 기존 8주 프로그램을 4주로 단축하고, 평신도 지도자 교육의 1단계로 연결했다.

기존 새가족 교육은 새기쁨 교육, 새생명 교육의 8주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되었다. 새가족 등록을 했어도 8주간의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 교인이 되는 비율

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새가족위원회의 고민거리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가족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목회선교지원실과 협력하여 새가족 교육 4주 재편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

4주로 바뀌는 새가족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주 차는 새가족 교육을 안내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선교구 및 교구를 연결하는 킥오프(Kick-off) 개념의 시간을 가진다. 2-4주 차에 본격적인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는데, 1강 광림교회의 정체성, 2강 그리스도인의 삶, 3강 교회 생활을 주제로 교육을 받는다.

새가족은 교육을 통해 광림교회를 더 잘 알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고, 광림교회 교적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런 다음 4STEPS 중 첫 번째 단계인 평신도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면하는데, 수료자는 세례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목회선교지원실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지도자 과정 STEP1은 6주 과정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상국 장로는 "기존 8주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면, 이번엔 4주로 재편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가족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가족 교육을 재편하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새가족 교육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교육 수료일에는 성

경책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새가족에게 배부되는 교재와 리플렛 등도 새롭게 바뀐다.

새가족 위원회 총무를 맡은 심재필 권사는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며 혼자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기에 새가족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님을 비롯해 새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새가족 교육 재편에 힘을 썼다. 2023년에는 새가족 교육이 자리를 잘 잡고, 수료자가 많아져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가족 등록 문의 : 02-2056-5716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3

##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

눅 19:5

여리고 성의 삭개오는 세리장(稅吏長)으로, 큰 부자였다. 평소 그는 예수를 몹시 만나고 싶었다. 삭개오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로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이미 예수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고, 유달리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의 얼굴조차 바라볼 수 없었다.

그때 삭개오의 눈에 뽕나무(뿔무화과나무)가 보였다. 예수가 지나가는 방향을 봤을 때 분명 뽕나무 밑을 통과할 것 같았다. 삭개오는 즉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체면, 위험은 상관없었다. 삭개오는 오직 예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소망이 가득했다.

잠시 후 예수와 제자들이 뽕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였다. 걸음을 멈춘 예수가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못마땅해하였다. "저런 죄인의 집에 묵으시다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세리의 집은 창기(娼妓)의 집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제국이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고용한 유대인으로, 특히 세리장은 부당한 세금징수와 횡령을 일삼아서 죄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귀하고 천한 신분의 차별 또한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

삭개오는 예수와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회개의 결단으로 자기의 많은 재산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제가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게 있으면 그 네 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20%를 나누며 속여서 빼앗은 것은 5분의 1 만 보상하면 되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50%를 나누겠다고 했으며 4배나 보상한다고 한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삭개오의 재산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철저한 회개였고,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삭개오의 참된 마음을 본 예수는 말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예수 그리스도와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 성에 살던 삭개오는 부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유대인들의 원성과 멸시를 받던 세리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작품.



▲ 돌아온 탕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모습이다. 폼페오 지롤라모 바토니의 작품.

## 잃은 사람을 찾는 예수 눅 19:10-11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다."(눅 19:10-11)

예수의 주변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머물며 열심히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못마땅하여 예수를 비난하였다. "율법에는 '악한 사람과는 접촉하지도 말고, 율법도 제시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이다. 예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보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이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다.

이어서 예수는 잃어버린 은전(銀錢)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즉 여인이 열 개의 은화를 보물로 여기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 잃어버린 은전이 다시 가치를 찾으려면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예수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하였다. 예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에게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알려 주었다. 이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환영받는다든 예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였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 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